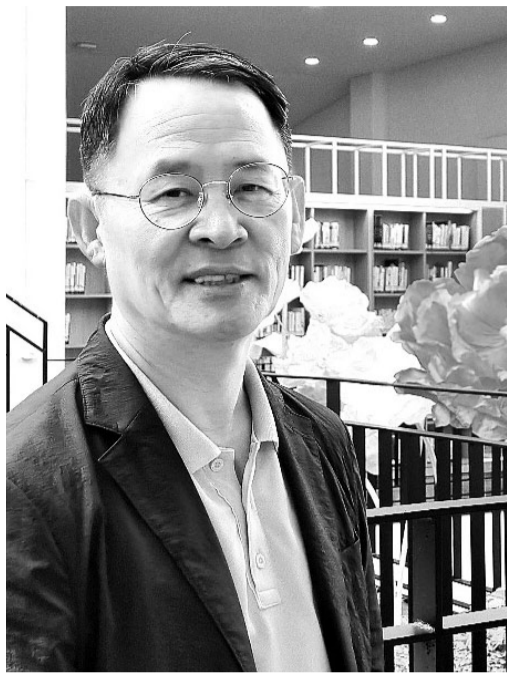


“시, 꽃처럼 피워 세상을 밝히고 싶어요”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신인들 등단 돕고 오프라인 소통 시를 통해 경쟁사회 무력감 탈피 마음이 꽃피는 공동체 꿈 꾸



'시꽃피다'를 창간한 조선의 시인은 “시를 꽃처럼 피워 시인으로 밝히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은 43%에 불과하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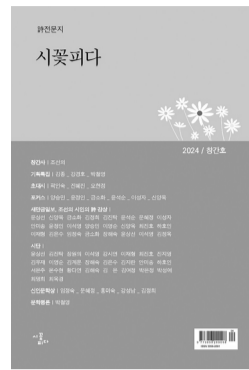
점점 책을 읽지 않는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일반 독서 외에도 시를 읽는 독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를 읽지 않는 시대'에 시 전문 문예지를 창간한 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조선의 시인. 그는 지금까지 시를 부지런히 쓰고 시 관련 창작 강의를 전문으로 해왔다. 충분한 역량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시 전문지 '시꽃피다'를 창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고개부터 가웃겨려졌다. 활자문화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마당에 지역에서 시 전문지를 창간한다는 것은 여간한 결심 없이는 힘든 일일 터였다.

"맞습니다. 요즘은 시를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시에 대한 낭만과 서사가 시대적 기호에 밀려 이제 시는 대중보다는 시인들을 위한 시가 되었습니다. 문예지를 만든다고 하니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구요. 경기도 좋지 않은데 굳이 일거리를 만드는 거였지요. 하지만 심시일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마음을 합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깃발을 올렸습니다."

간혹 시를 매개로 한 강좌, 수상 소식 등을 전해 오던 터라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하려니 싶었다. 그런데 문예지를 만든다며 한번 해보겠다고 조 시인은 마치 남의 일 말하듯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광주 등 여러 곳에서 창작 강의를 하는데요, 기성 시인들도 계시고 몇십 년 전에 읽고 쓴 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마추어 분들도 있지요. 사실 기성 시인들은 각종 문예지에 참여할 기회가 있지만 아직 등단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발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도 하면 된다는 용기와 기회를 드리고 싶어 문예지를 창간하게 됐



리고자 의기투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인들이 상상한 날것 같은 심상을 문예지를 통해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등단한 시인들도 그런 습작 과정을 거쳐 지금은 당당하게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창간호에는 가급적 기성시인보다는 아마추어를 대거 참여시켰다. 등단 5년 미만이나 처음으로 발표하는 예비 시인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했다.

조 시인은 창간을 계기로 광주, 전주, 대전, 서울 등지에서 무료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시에 관심 있는 이들이 오기 때문에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서로 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를 쓰고, 강의를 하고, 문예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등등 바쁜 텐데 더 바빠질 것 같다는 말에 그는 "그럼에도 하루 종일 생각의 점유율은 시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시에 대한 몰입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시로 채워져 있는 듯했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강자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1년에 2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시상을 교환하고 우의를 돈독하게 다질 생각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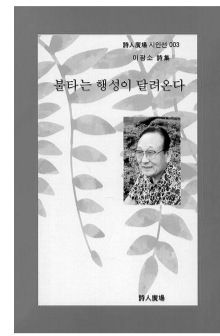
"'시꽃피다'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결국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꽃피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조 시인은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기독교신춘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에 당선됐으며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추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외 8권 시집과 '생명의 시 1-6'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를 쓰는 건 고정관념을 부수는 것”

전주 출신 이광소 시인 '불타는 행성이 달려온다' 펴내



부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책에 갇혀 있던 말이 / 어느 날 철책을 뚫고 탈출했다 / 나는 당황했다 / 말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 / 간간이 들리는 말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인다 // 발자국은 어느 때는 케냐 다나브 난민 캠프를 달리고 / 어느 때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쓰러진 콩고 남부 지역을 달리고..."

위 시 '마이산(馬耳山)에 와서'는 시인의 시적 세계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활달하면서도 경쾌하다. 신화적인 상상력, 설화적인 감성 등이 화자의 심상과 잘 연계돼 새로운 감흥을 선사한다.

이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불타는 행성은 새로운 공간계로 나를 싣고 달린다. 그곳에 새로운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글을 쓴다는 것은,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시인들 저마다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겠다.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을 글로 형상화하는 것, 지나온 시절을 감성적인 시각으로 그리는 것 등 다양하다.

전주 출신 이광소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은 '고정관념을 부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시인의 생각은 일찍이 모리스 블랑쇼의 "신전을 짓기 이전에 우선 신전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새로운 신전을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신전을 허무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이광소 시인이 최근 '불타는 행성이 달려온다'(시인광장)를 펴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활달한 상상력과 자신만의 언어로 창작을 하는 시인은 오래 전 문공부 신인예술상 시부문 당선을 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미당문학' 문학평론에 당선돼 평론활동도 겸하고 있다.

이번 시집 제목 '불타는 행성'은 그의 시 세계만큼이나 이색적이고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신전을

조선인 살해범 찾기 '영화 같은 연극'

북구문화센터 15일 '그때, 변홍례' ... 변사·흑백영화 기법 등 선보여



연극 '그때, 변홍례'의 한 장면. <북구문화센터 제공>

지난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 리투아니아 스페인 등 해외 극장가를 수놓았던 화제작.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선정작.

북구문화센터가 특별기획 연극 '그때, 변홍례'를 오는 15일 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운사중이 연출한 이번 작품에는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시간을 질하는 사람' 등을 선보여 온 극단 하땅세가 출현할 예정이다.

1931년 일제강점기, 조선인 고녀(고용된 여자)인 '변홍례'가 철도회사 사장 사택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다. 그녀의 진실을 숨기려는 자와 밝혀려는 자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관객들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작품에는 그 시대의 대중문화인 '무성영화 촬영 기법'이 접목돼 있어 시각적 볼거리가 다양하다. 탐정소설 같은 전개 속에서 관객들은 1930년대 영화적 연기, 흑백영화 기법 등을 마주하게 된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높은 완성도를 갖췄으며 사회풍자극으로서 역할을 확대했다는 평가 등을 받는다.

변홍례(마리아)役に 김채연, 대교사장役に 유

연극에 관심 있는 중·고생 모여라~

극단 토박이 '청소년을 위한...연극놀이터' 선착순 15명 모집

"청소년을 위한 뼈대들의 생기발랄 연극놀이터!"

극단 토박이가 '청소년을 위한 뼈대들의 생기발랄 연극놀이터'에 참가할 수강생을 선착순(15명)으로 모집한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9시까지(조정 가능) 민들레소극장에서 총 15회 진행할 예정이다.

연극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토박이 카카오톡, 전화, 문자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를 상연한 바 있다.

토박이는 2012년부터 매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문학, 음악,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를 마련해 왔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983년 창단한 토박이는 오월극 '모란꽃', '금희의 오월'을 비롯해 '오! 금남식당', '마중' 등 다양한 작품으로 지역 관객들을 만나 왔다.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연극학교'를 비롯해 환경뮤지컬단 '가이아', 청소년 문화예술배우터 '아우라지'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극단 토박이 관계자는 "문화예술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길러내는 것이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취지"라며 "연극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강료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